

전남 치어방류 20년 고기들이 돌아온다

1988년부터 2억마리 이상 방류...올해도 26억 투입 도미·넙치 어획량 풍부, 종패 뿌린 해삼·전복도 늘어



축령산의 하지(夏至) 낮이 가장 길다는 하지(夏至)인 21일 장성군 서삼면 축령산 편백나무 숲을 찾은 등산객들이 그윽한 편백 향기를 맡으면서 산림욕 체험을 하고 있다. 불볕 더위가 기승을 부린 이날 광주·전남 낮 기온은 31도까지 올라갔다. /장성=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지난 2009년 완도와 여수 안도 등지의 해역에 전복 종패 98만7000미(예산4억5800만원)를 방류했다. 그 해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 이 해역에서 잡힌 전복을 자연산과 양식 후 방류해 폐각에 초목색띠가 남아 있는 방류 전복으로 분류해 조사했다. 결과는 어업소득이 3.1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종패 방류로 13억여원의 어획고를 올렸다는 뜻이다.

이처럼 수산종묘 방류 사업이 환경 오염과 기후변화로 황폐해진 바다를 풍족한 어장으로 만드는 대안이 되고 있다. 전남지역을 비롯해 국내 대부분의 지자체가 한 해 수십억원의 수산종묘를 바다와 강에 앞다퉈 방류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전남도 올해 26억원어치 방류=전남도는 수산자원 확대와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올해 수산종묘 매입 방류 사업비 26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62% 늘어난 금액이다. 도는 지난 2009년 21억여원, 2010년 15억여원, 2011년 15억여원을 들여 치어와 어린 전복 등을 물에 풀어 놓았다. 대하, 넙치, 조피볼락, 전복, 감성돔, 돌돔, 농어, 참돔, 해삼, 보리새우, 꽃게, 쥐치, 개불, 볼락, 황점볼락, 참조기 등 방류되는 종류도 다양하다.

도는 지난 1988년~2008년 61억여원을 들여 수산종묘 2억여만 마리의 치어와 폐류를 연안 어장과 내수면에

방류했다.

◇과학적 방류로 효과 높아야=수산종묘 방류 사업을 통해 어획량이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다. 지난해 여수지역 어민 1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0% 이상이 종묘 방류로 소득이 증대됐다고 답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자라는 과정에 많이 이동하지 않고, 방류 지점 인근에서만 생육하는 40여종의 어패류를 방류하고 있다. 평균적으로 방류 종묘의 20~30%가 포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방류 사업과 관련된 사후 연구는 현재 걸음마 단계다. 그동안 어민들에게 고기가 얼마나 잡혔는지 물어보는 설문 조사가 그쳤기 때문에 어획량 증대에 대한 정확한 수치를 확인할 수도 없다.

방류에 따른 효과도 지역별 편차가 크다. 지난해 국립수산물관리원의 '수산종묘 방류효과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방류한 넙치가 섬어가 돼 다시 잡힌 비율은 부산 39%, 통영 41%, 완도 72%였다. 지역별로 잘 자라는 어종이 다르고, 재포획률이 어종에 따라 차이가 큰 셈이다.

이에 제주도는 특산종인 전복과 오징어 치어 방류사업과 관련, 최적의 생태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마을별로 적지 조사를 통해 품종과 방류시기·크기·수심 등을 파악해 적용하는 '맞춤형 어장 방류모델'을 만들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수시모집 8월16일 시작...대입정원 64% 선발

2013학년도 대학입학 정원의 64.4%를 뽑는 수시모집이 오는 8월16일 입학사정관 전형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시행된다.

올해 수시모집 지원횟수는 6회로 제한됐고, 수시 합격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정시에 응시할 수 없으므로 수시 지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1일 전국 200개 4년제 대학(교대, 산업대 포함) 중 수시모집을 하는 195개 대학의 '2013학년도 수시모집 요강 주요 사항'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7면>

이번 수시모집 인원은 4년제 대학 총 모집인원 37만7958명의 64.4%인 24만3223명으로 지난해 23만7681명(62.1%)보다 5542명 늘었다.

입학사정관 선발규모도 125개 대학 4만6337명(수시모집 인원의 19.1%)로 지난해보다 7406명이 늘었다. 전형유형별로는 일반 전형 모집인원이 167개 대학 12만9535명(53.3%), 특별 전형이 192개 대학 11만3688명(46.7%)이다. 이중 입학사정관 전형은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면접 등을 통해 인성평가가 강화됐다.

수시모집은 지원한 대학 수가 아니라 지원한 전형 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같은 대학에서 복수의 전형에 지원한 경우도 별도의 전형에 각각 지원한 것으로 산정한다.

등록기간은 12월 11~13일, 미등록 총원 마감은 12월17일 오후 9시, 미등록 총원등록 마감은 12월18일이다.

수시모집 원서접수 1차 기간은 8월 16~9월11일, 수능 이후인 2차 원서접수 기간은 11월12~11월16일이다. 전형기간은 9월6~12월3일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윗선 없다” 디도스 특검 수사결과 발표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발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대한 디도스(DDoS·분산 서비스거부) 공격사건을 수사해온 디도스 특별검사팀(박태석 특별검사)은 21일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특검팀은 또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실 행정관 김모(44)씨,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실 수행비서 김모(42)씨를 같은 혐의로, LG유플러스 차장 김모(45)씨를 위계공무집행행

해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사무관 고모(49)씨를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박태석 특별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역삼동 영일빌딩에 마련된 특검사무실에서 지난 3월26일부터 약 3개월간 벌여온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특검팀이 수사기밀을 누설한 혐의 등으로 김 전 수석 등 5명을 기소했으나 검찰과 경찰의 기존 수사결과에서 더 진전된 윗선 개입 의혹은 전혀 밝혀지지 못함에 따라 부실 수사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연필뉴스

알림

韓中수교 20주년 기념

“니하오 평여우” 사진 콘테스트
(你好朋友·안녕 친구)

한국인이 본 중국, 중국인이 본 한국
나만의 앵글에 담아 중국여행 떠나자

오는 8월 24일로 한국과 중국은 수교 20주년을 맞습니다. 광주일보사와 주광주 중국 총영사관은 이를 기념해 광주 전남북에 거주하는 양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사진 콘테스트를 개최합니다. 한국인의 눈에 비친 중국인의 생활상과 중국 풍경,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의 눈에 비친 한국의 모습을 사진에 담아 응모해 주십시오. 우수작은 오는 8월 광주 전남북 주요도시에서 순회 전시합니다.

- 출품 마감: 2012년 7월 18일 오후 6시
- 참가 대상: 광주 전남·북 거주 한국인 및 중국인
- 작품 내용: 상대국의 풍경과 생활상을 담은 사진
- 시상: 대상(3박4일 중국 여행권, 중국 명주 1봉) 우수상(중국 왕복항공권, 기념품)
- 접수: 홈페이지 (2012cn-krphotocontest.com)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중국총영사관 홈페이지(gwangju.china-consulate.org/kor/)
- 문의: (062) 2200-616, 385-8874

광주일보사 光州日報社 주광주 중국총영사관

역시! 여신급이다!

상무 최고의 자리, 상무광명메이루즈에서 여신급특혜와 혜택을 누리십시오!

여신급위치: 김충진 상무지구내에서도 최고의 위치 / 여신급 환경: 롯데마트, 이마트, 영화관, 병원, 시청, 5.18기념공원, 온천저수지 등 최고의 환경 / 여신급 분양가: 상무지구 마지막 600만원대 혜택

토지 계약완료 600만원대 특급분양가

84㎡ [구]35평형 총496세대

광명메이루즈 2차 조합원 모집중

분양문의 062) 511-7400